

動物藥品 流通上의 問題點

- 합리적인 개선책은 없을까? -

朴 喜 春*

모두가 民主化를 부르짖고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이 마당에 우리 獸醫界도 비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改善策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動物藥品의 流通體系를 바로잡는 일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동물약품은 生必品처럼 차량에 실려 고을마다 양축농가의 축사에까지 도착되어 수의사의 지지도 없이 誤·濫用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개업수의사 중에서도 小動物을 위주로 진료(pet clinic, animal care clinic)를 하는 회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관심밖의 일이었지만, 大·中動物(産業動物)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동물약품의 유통상의 문제가 권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의약품은 원래 人間의 生命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격있는 자에 의해서 소중하게 다루지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가축이 생산하는 알, 고기 및 우유를 다시 사람이 먹기 때문에 動物用으로 專用되는 의약품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國民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公衆保健上의 문제, 畜産農家의 피해 그리고 중·대동물을 진료하는 開業獸醫師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동물

*청리가축병원

약품의 유통 및 취급상의 중요성이 관심있게 논의되어 그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영농후계자가 성공사례를 발표한답시고 「...나는 이제 소가 병들어도 내 손으로 직접 주사를 놓아 고칠 수도 있고.....」라며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현실의 단면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된 연유는 우리들이 獸醫技術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傳播시킨 데에도 잘못이 있겠지만, 동물약품의 유통체계가 제자리를 잡지못한 때문일 것이다.

현행 법규에 의한 동물약품 판매업자가 販賣秩序 維持에 필요한 사항을 遵守하고, 지도·감독 및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감시기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현상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나, 現實을 직시하지 못한 법규 제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다.

動物藥品等 取扱規則에 의하면 동물약품 판매는 動物藥局을 개설·등록한 약사와 관리약사를 두고 動物藥品都賣商 허가를 받은者,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즉, 판매행위만을 볼 때 동물약국은 小賣를 위주로 한 취급을, 동물약품도매상은 최종판매자를 위한 판매를 하도록 구분된 것이다.

藥事法에 의한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은 법규를 잘 지켜 명확하게 구분·兩立되어 있는데, 農林

水産部長官 所管事項으로 이관된 動物用醫藥品의 판매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국의 대부분의 도매상허가를 받은 동물약품 취급점인 동물약품상사라는 데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동물약품도매상이 소매를 일삼아 동물약품처럼 僞裝을 하는 것은, 동물약품이 市·郡마다 골고루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藥師가 모자라지도 않는다는데 동물약품은 개설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들이 볼 때 일반약품보다는 收益性이 못하고, 축산경기의 불투명으로 將來性이 없을 뿐더러 수의학 및 축산에 대한 專門知識 결여로 自信感이 없어 그들에게는 人氣가 없기 때문이다.

앞의 여러가지 현실을 살펴볼 때, 이것을 목인, 傍觀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은 사람에게 쓰이느냐 동물에게 쓰이느냐에 따라 人醫用과 動物用으로, 人醫用은 다시 생약인지의 기준에 따라 洋藥과 漢藥으로 나눈다.

한약은 그 특수성 때문에 漢醫師가 다루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앞뒤를 고려치 않고 “약은 약사가” 하는 안이한 발상으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령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사항이다.

동물은 解剖生理學的으로는 물론,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환경위생 등이 사람과는 틀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동물약품이라 할 지라도 製造나 賣藥 등은 약사가 할 수 있겠지만, 양측 및 질병相談, 축산지도 그리고 수의사의 양측현장과의 밀착도 등의 전문성 및 現場性 등을 고려한다면 동물약품의 취급에는 獸醫師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수의사는 대학에서 수의藥理學 및 毒性學을 각 4 학점씩, 약리학 및 독성학실험을 각 2 학점씩 이수하였다.

약사는 수의학이나 축산일반에 대하여 대학에서 교과과정으로 배우지 않았다.

그렇다고 동물약품 취급을 수의사만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動物病院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해서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動物用이라 하여 수의사가 취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모순되는 점도 있다.

우리가 한의사와 漢藥의 관계에서 보듯이 그들은 한약을 많이 팔면서도 處方과 調劑에 의하지 않고는 팔지 않는다.

수의사가 동물약품을 다룰 때도 그와 같은 원칙이 고수돼야 하겠지만 입장이 매우 다르다.

우리가 臨床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예로 들어 보면, 仔豚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주사까지도 수의사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때는 수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축주가 주사할 수 밖에 없다. 또 소가 여러마리 있는 農家에 왕진을 갔을 때 患畜 말고 다른 소의 건강상태를 check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충제투여나 피부병 등에 대한 투약을 지시할 수 있다. 그때 해당약품이 동물병원에 具備되어서 치료를 위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의사의 동물약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동물약품과 같이 무한정으로 매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앞으로 계속 研究하여 發展시켜 나가야 할 일이겠지만 品目을 定하여 수의사 外에는 취급할 수 없는 規制條項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규제를 해야 할 약품은 Hormone製劑, 生物學的製劑, 抗生劑 그리고 注射製劑中에서 정하는 품목이 될 것이다.

“수의사의 權益은 스스로 보호합시다.” 라는 catchphrase 아래 韓獸藥品(株)가 공급하는 DH PL 등 개 Vaccine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수의사 專用약품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기준

은 大韓獸醫師會에 동물약품審議委員會같은 것을 두어서 各界의 전문가가 고루 위원으로 참여하여 거기서 정하면 될 것이다.

전국에는 資質과 品位를 갖춘 수의사가 市·郡마다 골고루 分布되어 개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裝置가 마련된다면 개업수의사는 동물약품을 더욱 귀중하게 다뤄서 지금과 같은 유통체계의 무질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물약품의 오·남용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회원의 권익을 伸張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나

아가 畜産業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公衆保健向上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동물약품 유통체계는 더욱 어지러워져서 나중에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獸醫分野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에게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잘못을 옳게 고치는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곧 民主化로 가는 길이 아닐까.

소화기질병 전문예방 치료제

스티뮤렉스[®]

STIMULEX

스티뮤렉스는 Denmark의 BIOFAC 회사가 특수한 공법으로 개발한 순수한 제 1 위 내용물 추출제제입니다.

송아지 설사의 예방과 성장촉진효과

어린 송아지에 스티뮤렉스를 투여하면 설사 발생율을 96%나 감소시키며 제 1 위가 발달하게 되어 영양소의 소화흡수율을 증가시키므로 증체량이 20%이상 증가됩니다.

농후사료 과량급여로 인한 소화기 질병의 예방, 치료

농후사료 과량급여로 인한 식체, 소화불량, 고창증, 과산증,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질환을 탁월하게 예방, 치료하며 유량을 10%나 증가시킵니다.

소의 질병치료시 보조요법 및 도입우에서 효과

질병치료시 치료약품과 병용하여 투여하면 제 1 위의 기능이 활발해져 회복이 빨라지고 도입우에서도 이동, 사양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식욕이 좋아지고 빨리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스티뮤렉스의 놀라운 효능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한풍산업주식회사

HAN POONG INDUSTRY CO., LT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천록빌딩 7층)

TEL 845-1171/4

* 본사 학술부로 연락주시면 스티뮤렉스에 관한 기술자료를 보내드립니다.